

## 미국 출판·잡지문화의 개척자들 「편집자의 세계」

—신구전문대 全泳杓교수

지금 독서중

‘명편집자는 작가에게 있어서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며, 교사이며, 악마이며, 신이다.’

1962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존 스타인벡이 1964년 10월 바이킹 프레스社의 편집자 파스칼 코비치의 장례식에서 한 말이다. 이렇듯 출판사를 비롯한 언론매체의 편집자는 작가와 그의 작품, 나아가 독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출판이론 뿐만 아니라 편집실무에도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신구전문대학 全泳杓교수(50·출판학)는, 미국 출판·잡지문화의 개척자들을 재미있게 소개한 「편집자의 세계」(高廷基 편저)를 대단히 흥미롭게 읽고 있다고 말한다.

“1920년대에서부터 오늘까지 미국의 출판문화를 이끌어왔던 유명 편집자들의 편집세계, 그리고 그들과 작가와의 관계가 숨김없이 소개되어 있는 책입니다. 한편의 책을 만들어내기까지 그들이 쏟은 애정과 헌신을 살펴봄으로써, 편집자는 큰 안목을 지닌 아이디어맨일 뿐만 아니라 헌신적이고 봉사적인 자세를 필수적으로 지녀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윌리엄 포크너를 노벨문학상 작가로 밀어 준 랜덤 하우스社의 편집자 섹스 카민스, 헤밍웨이의 편집자 맥스웰 퍼킨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웰레스 부부. 특히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폭주하는 잡지기사들 속에서 흥미있는 것들만을 선별해 수록하자는 기발한 착상 하나로 오늘날 2천8백만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잡지로 성장했다. 잡지의 성패에 있어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고전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제1차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조르주 클레망소의 「전쟁론」출판을 면전에서 거절했던 하퍼 앤드 브라더스社의 캐스 캔필드의 예리한 판단과 두둑한 배짱, 고집스러운 편집자세도 독자에게는 흥미와 교훈을 함께 전해 주는 일화이다.

“편집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풍부한 지식과 아이디어, 날카로운 판단력, 확고한 편집철학,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섹스 카민스는 ‘편집자란 항상 그늘에서 청소하고 수리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편집자의 본질을 간파한 말로 편집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출판사를 거쳐 월간 「새마을」의 편집부장을 지내기도 했던 全교수는, 어느 직종보다도 보람있는 직업이 바로 편집자라고 말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나타낸다. 월간지를 내면서 마감시간에 쫓겨 애태웠던 일, 기자들로부터 인정사정없는 편집장이라고 원망을 샀던 일, 그 수많은 야근날들이 즐겁고도 그리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최근에는 「韓國出版論」(대광문화사)을 펴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全교수는, 좀더 여유가 생기게 되면 문화에 기여하는 잡지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인다.

책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가을이야말로 대목인 까닭에 오히려 독서와 멀어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따라서 全교수는 관심있는 이들은 물론, ‘야근의 시즌’에 시달리는 편집종사자들에게 「편집자의 세계」를 권하고 싶다고.

—오애리 기자



## 제주도민의 환상의 섬 이청준의 「이어도」

—TV 텔런트 高斗心씨

지금 독서중

탐라사람이 탐라이야기를 읽고 있다.

TV의 인기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온후하고 이해심 많은 만머느리로 자신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는 텔런트 고두심씨(35)가 가을 들어 다시 손에 든 책은 이청준씨의 소설 「이어도」. 제주도가 고향인 고두심씨는 이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고등학교 이후 떠나왔던 고향의 풍물과 그곳 사람들의 풋풋한 냄새를 그대로 다시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도는 제주도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이 간다는 환상의 섬입니다. 한때 TV에서는 파랑도라고도 부르는 이 섬을 찾는 행사를 벌여 관심을 끈 적도 있었지요. 물에 남아 남정네들을 기다리는 그 막막한 날들을 견디어낸 제주여인들이, 풍랑에 밀려 돌아오지 못하는 남정네들의 죽음이 믿기지 않아 만들어낸 것이 이어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어도」를 읽으면 유채밭과 푸른 바다, 돌하루방의 독특한 생김새같은 것들만 생각나는 제주도의 본래 모습을 어렵게나마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섬이 가져야 하는 불행한 숙명, 거친 바다와의 싸움을 겪는 사람들을 통해 제주여인들의 한숨 섞인 인생, 그들의 한과 끈질긴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두심씨는 어린 시절 주변에서 마주했던 아주머니들의 주름진 얼굴, 햇볕에 그들은 피부가 눈앞에 다시 다가서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어도가 아니라 ‘이어도’라고 주장하는 고향사람이 있어요. 배 저을 때 하는 이어이어 소리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

들었던 민요들에서도 한사람이 선창을 매기면 여러 사람들이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하는 후렴을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어도’든 ‘이어도’든 그건 제주의 독특한 삶과 믿음의 소산이지요.”

고두심씨는 이 작품이 그의 고향에 대한 것이어서이기도 하지만 이청준씨의 작품이라는 데에도 매력을 느낀다. 작가와는 개인적 친분이 있지만, 독자를 괴롭히는 작가라는 점에서 더욱 끌린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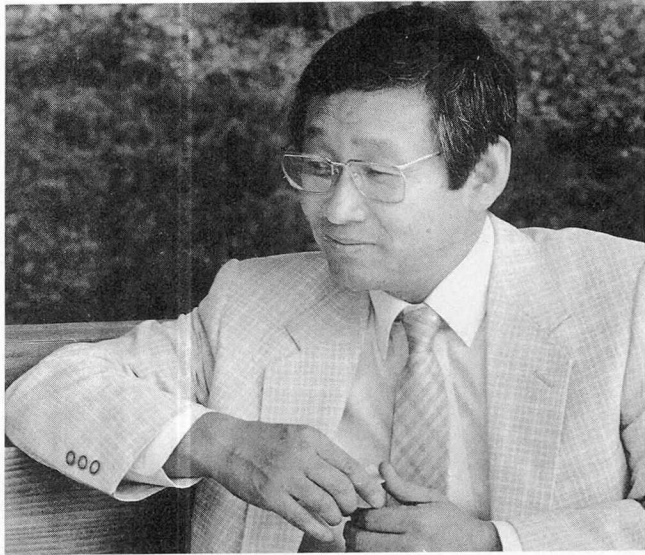
“그의 소설을 읽고 나면 뭔가 가슴이 묵지근해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를 하나 더 얻었다는 느낌이랄까, 개운치 않은 무엇이 앙금처럼 가라앉게 되더군요. 이어도 역시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책은 언제나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실제로 시간이 부족함을 말하는 고두심씨는 직접 서점을 경영해 본 적도 있다. 85년까지 6년동안 코오롱빌딩 지하에 ‘두심서점’이라는 이름으로 친숙했던 이 서점은 책에 대한 그의 관심의 표현임과 동시에 마음의 위안도 되었다고.

“예닐곱평 남짓한 작은 서점이었지만 오밀조밀한 게 꽤 아담했어요. 가끔 둘러보면 책이 그득한 개인서재같아 그저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지요.”

일년에 몇번은 유명작가를 초청해 강연회도 열곤 했다는 이 서점에 대해 아직도 강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

1남 1녀의 어머니, 주부이면서 텔런트로 1인3역을 해내느라 시간이 빠듯한 그이지만, 작품은 영상으로보다 책으로 읽어야 제 맛이 난다고 덧붙인다. —박경순 기자



## 고정된 관념의 틀을 부수는 드 보노의 「수평적 思考」

—MBC 성우 崔洛天씨

지금 특사중

라디오와 TV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崔洛天씨(47)는 방송국 관계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연기자로 알려져 있다. 65년 문화방송 성우 2기생으로 연기생활을 시작한 崔洛天씨는, 최근 외화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에서 근엄한 킹스필드 교수역을 해낸 것을 비롯, 인기 주말연속극 「사랑과 야망」에서는 ‘정자’란 박복한 딸을 둔 아버지(당구장 주인)역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단 배역이 정해지면 그 인물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게 되지요. 따라서 자료조사를 위해 책을 자주 들춰 보는 편입니다.”

특히 「사랑과 야망」을 준비하면서는,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1950년대부터 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일간지 기사들을 독파해 주변 연기자들의 감탄을 사기도 했다.

주로 역사서와 철학서들을 가까이하고 있는 그가, 바쁜 스케줄 틈틈이 읽고 있는 책은 에드워드 드 보노의 「수평적 사고」(한국능률협회 편역).

“수직적 사고에서는 1+1=2이지만, 수평적 사고에서는 5도 될 수 있고 무한대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드 보노의 주장이지요. 한 예를 들어보지요. 옛날에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꿈쩍없이 고리대금업자에게 시집을 가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고리대금업자는 주머니에 흰색 돌과 검은색 돌 중에서 흰색을 꺼내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결혼강요도 취소하겠다고 장담했지요. 그

사람이 검은색 돌만 주머니에 넣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아가씨는 정말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때 아가씨는 그의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자마자 뒤에 있던 돌무더기 위에 버리고 나서, ‘어머 실수했네요. 하지만 주머니 속에 남은 돌 색깔을 보면 내가 어떤 돌을 집었는지 알 수 있겠지요’라고 말했답니다. 바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유연한 두뇌 움직임이야말로 수평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 인생을 살아야 하는 연기자로서는 고정된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는 수평적 사고가 더욱 요구될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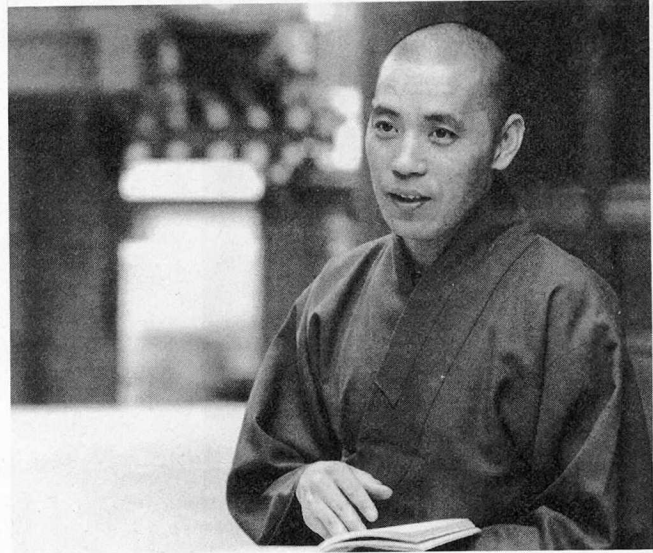
崔洛天씨는 비단 연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삶의 풍요를 위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한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성격상 워낙 산만한 직업이기 때문인지 솔직히 책 읽기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런 면이 없어서, 시간이 나면 방송국 도서관을 자주 찾고 야외촬영 나갈 때도 책을 넣고 다니는 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호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와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를 생활신조로 삼고 있다는 그는, 그래서 젊은이들의 이른바 킬링타임 풍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고스톱 열풍을 ‘망구병’으로 지적한다. 부단한 번신의 노력이 있어야만 발전이 있으며, 독서야말로 가장 확실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는 말한다.

비록 방송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 자신은 흥미있는 시사프로그램이나 모니터를 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TV를 켜지 않는다고.

— 오애리 기자



## 종교적 경건성 느끼게 하는 「한국의 굿」 시리즈

—大覺寺 東峰스님

지금 특사중

“佛法門中 不捨一塵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법문중에선 티끌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불교에선 타종교나 타학문에 대한 배척 없이 그것들을 모두 수용합니다. 물론 처음 수도하는 과정에선 불교서적 외에는 읽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 이르면 다른 서적들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佛家에서의 독서생활을 이렇게 말하는 東峰스님(32·大覺寺 教務)은 요즘 巫俗에 깊이 빠져 있다. 홍사단에서 있었던 金仁會교수의 무속에 관한 강좌를 듣고부터 무속에 깊은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 흥미롭게 읽게 된 책은 「굿」(1986). 「한국의 굿」 시리즈로 각도의 대표적인 굿을 사진과 함께 설명한 책인데, 모두 20권짜리로 현재 19권까지 나와 있다. 그중 「황해도 내림굿」(김인회·최종민 글, 김수남 사진)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내림굿이란 巫病을 앓아 몸에 神氣가 있는 사람이 만신이 되기 위해 하는 굿입니다. 이 책은 최초의 여류 국악사이며 미국에서 한국무용 등을 강의한 蔡熙我(43)씨가 무속 공부 중 몸에 신기가 들러 무병을 앓다가 귀국했는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황해도 출신 무당 金錦花(53)씨가 채희아씨를 신말로 맞이하는 내림굿의 진행과정을, 한국 무속을 연구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종일관 관찰하면서 쓴 것입니다.”

최근에 잘 알던 사람이 신병을 앓아 내림굿을 받아 무당이 됐는데, 그때 그사람이 작두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무속의

불가사의한 면과 함께 예술적 아름다움과 종교적 경건성을 느꼈다는 동봉스님은 무속이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종교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서구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무속을 샤머니즘으로 몰아, 버려야 할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치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무속은 현실에 맞게 개발시켜 보존해 나가야 할 우리의 고유종교라고 생각합니다.”

法頂스님이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를 읽고 ‘화엄경 80권을 갈무리했다’고 했듯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더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본사상에 다가설 수 있으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근본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동봉스님은 덧붙인다.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가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부처님 앞에 바치는 모습에서 부처님의 가장 큰 뜻을 느낀다고.

하루중에서 책읽는 시간보다 글쓰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동봉스님은 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불교의 우주관」 「비유의 바다」 등의 역서가 있다. 또 몇편의 수상집도 발표했는데, ‘사자는 사자소리 내고 여우는 여우소리 내듯이’ 주로 그가 불가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적었다고 한다.

속독을 배웠기 때문에 두꺼운 책 한권 정도는 하루면 다 읽을 수 있지만 유일하게 불경만은 속독을 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깊이 읽는 책은 역시 불경이라고.

— 최윤희 기자